

## 트렌드컬러 분석을 통한 연도별 헤어컬러 경향에 대한 연구 2006년~2020년 헤어컬러 중심으로

김효정\* · 홍보경\*\*+

경일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자인학과 박사과정\*  
서영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 A Study of Annual Hair Color Trends through Analysis of Trend Color - Focusing on hair colors from 2006 to 2020

Hyo-Jeong Kim\* · Bo-Kyung Hong\*\*+

Ph.D Course, Dept. of Design, Graduate School, Kyungi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Health Care Administration, Seoyeong University\*\*+

투고일 : 2022.02.15 / 수정일 : 2022.05.23 / 게재일 : 2022.06.20

####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help users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hair color and suggest a direction to select and express more trendy color after analyzing trend color and hair color from 2006 to 2020. For this, the concept of trend color and annual trend color announced by PANTONE were examined as a theoretical review. To analyze domestic hair color trends, colors released by the nation's leading hair dye manufacturers 'AMOS', 'WELLA' and 'LOREAL' every year were classified, and hair color trends were analyzed, focusing on VOGUE, CECI and COSMOPOLITAN pictorials. Then, such annual hair color trends were analyzed and reviewed through online websites, magazines, hair trend-related academic papers, theses and technical books to examine hair color by brightness and color. The results found that hair color trends change over time according to social and cultural factors. It is also confirmed that PANTONE colors and three domestic hair-dye manufacturers' trend colors have revealed similarity since 2015 and had some influence on trend hair color in magazine pictorials.

**Key Words:** Color Trend(컬러 트렌드), Hair Color Trend(헤어컬러 트렌드), Hair Lightness(모발 명도), Hair Colors(모발 색상)

---

+Corresponding author: Bo-Kyung Hong, +82-31-930-9593, E-mail: karma0616@naver.com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배경

현대인들은 외모가 곧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며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생각하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처럼 개성표현을 중요하게 여기고 남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자신만의 상징성을 원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자신의 단점을 가리고 장점을 부각하는 수단으로 헤어스타일 이미지 변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헤어컬러를 이용하고 있다<sup>1)</sup>. 2000년 이전에는 헤어살롱 경영의 70~80%가 펌이나 커트 등으로 이루어졌지만, 정보와 산업의 발달로 세계화의 물결에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컬러시장의 저변이 확장되었다<sup>2)</sup>. 색상과 톤에 따라서 헤어컬러는 다양한 이미지를 나타내며 이미지 변화에도 다른 퍼스널 컬러와 조화를 이루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sup>3)</sup>. 헤어컬러는 새로운 이미지 변화를 추구하고 가장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헤어컬러에 대한 정보는 급변하고 있는 인터넷, SNS, TV, 잡지, 광고 등을 통해 트렌드의 많은 정보를 얻고 그 해의 헤어컬러 경향들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염모제의 트렌드 색상은 시대별, 시즌별 그 시대가 추구하는 미의 기준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했고,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뀌는 유형에 맞춰 어떤 컬러가 미래에 유행하는가를 예측하는 것 또한 중요해졌다<sup>4)</sup>.

본 논문의 목적은 2000년 후반부터 다양한 컬러마케팅의 정보 노출로 소비자들의 트렌드 컬러와 헤어컬러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며 점차 확장되고 있는 헤어컬러 시장에서 트렌드 컬러가 헤어컬러 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 대표적인 염모제 회사인 아모스는 2006년부터 독자적인 헤어 트렌드를 개발하였으며 소비자들의 헤어 컬러 선택행동도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러한 헤어컬러 시장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컬러 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2006년~2020년 사이의 시대 변화에 따른 트렌드 컬러와 헤어컬러의 경향을 고찰하기 위해서, 국내외 대표적인 염모제 회사인 아모스, 웰라, 로레알의 헤어 컬렉션에서 연도별로 발표된 헤어컬러의 흐름을 알아보고 선행논문을 분석하였다. 헤어컬러 트렌드에 관한 선행논문으로 2006년~2012년까지의 헤어컬러 트렌드 분석을 한 최지원<sup>5)</sup>과 2013년~2016년까지 분석한 양소영<sup>6)</sup>은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 주인공으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여자 연예인을 대상으로 헤어컬러의 경향을 연구하였다. 김주형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트렌드 컬러 경향과 헤어 트렌드 컬러 인식이 소비자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sup>7)</sup>을 연구하였으나 좀 더 대중적인 트렌드 헤어컬러를 파악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잡지를 선정하여 시대 변화에 따른 트렌드 컬러와 헤어컬러의 경향을 모발 명도와 컬러로 비교분석하고 트렌드 컬러에 대한 소비자의 헤어컬러 트렌드의 민감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잡지는 의상뿐만 아니라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트렌드를 볼 수 있으며 여성과 남성,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가장 대중적인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중들이 헤어컬러 트렌드 정보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성잡지 표지모델의 헤어컬러를 조사, 분석하여 과거 헤어컬러의 변화를 살펴보고 헤어컬러 트렌드를 예측하여 개인의 개성표현에 있어서 좀 더 트렌디한 헤어컬러를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헤어살롱에서도 이를 활용해 헤어디자인 기획 시 컬러의 선택범위를 넓히고, 또한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연구 의의를 두고 있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트렌드컬러 분석을 통해 2006년~2020년까지의 국내 헤어컬러의 경향을 고찰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이론적 고찰로서 트렌드컬러의 개념과 팬톤에서 발표한 연도별 트렌드컬러를 살펴보았다. 국내 헤어컬러 트렌드는 국내의 대표적인 염모제 회사 아모스, 웰라, 로레알에서 연도별로 발표한 컬러와 선행논문을 바탕으로 헤어컬러의 흐름을 알아보았으며, 헤어컬러 트렌드 분석을 위해서는 잡지 보그(VOGUE), 세씨(CECI),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의 화보를 분석하였다. 1차 분류한 헤어컬러를 명도와 컬러별로 세분화해서 분석, 고찰하기 위하여 인터넷사이트, 잡지, 헤어트렌드 관련 학위, 논문, 문헌자료, 전문서적 자료들을 통해 연도별 헤어컬러의 흐름을 2차 분석,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트렌드컬러의 개념을 알아본다.

둘째, 연도별 트렌드컬러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서 팬톤의 트렌드컬러 흐름을 파악하고

대표적 염모제 3사인 아모스, 웰라, 로레알 컬렉션에 나타난 연도별 트렌드 헤어컬러의 흐름을 알아본다.

셋째, 잡지 화보에 나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헤어컬러 트렌드를 분석하고,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헤어컬러 트렌드를 명도별 색상별로 비교 분석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트렌드 컬러

#### 1.1 트렌드 컬러의 개념

트렌드 컬러(Trend Color)란 유행의 경향을 상징하는 색으로 디자인 및 산업계에서는 유행 예상색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영국이 유행색 연구기관을 처음 설립하였고 제2차 세계 대전 후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공산권의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동독, 아시아의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을 포함한 19개국에 이르는 나라가 설치하였다. 각 나라의 디자이너와 직물 등의 단체나 제조 회사에서 상품의 유행 예상색을 계절에 앞서 제안하고 있다<sup>8)</sup>. 상품에서 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기 때문에 다양한 컬러 정보를 분석해서 컬러의 방향을 설정하는 컬러기획이 점차 중요시되어 상품의 컬러기획 단계에서 트렌드 컬러를 활용한다<sup>9)</sup>. 즉 트렌드 컬러란 현재 소비자가 선호하는 색이며 또한 미래에 유행이 될 것이라 예측되는 컬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게 도와준다. 상품기획에 있어 다음 시즌 컬러에 대한 경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트렌드 정보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sup>10)</sup>.

## 1.2 팬톤 트렌드 컬러

팬톤(PANTONE LLC.)은 미국의 로렌스 허버트(Lawrence Herbert)가 1963년 인쇄 산업의 복잡한 색의 매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창립한 색상 회사이자 색채 연구소이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색채 언어로 알려진 팬톤 컬러는 현재 각종 시각 예술분야 뿐만 아니라 건축, 패션, 디지털 기술, 도료 등 산업 전반에서 표준 색채 언어로써 사용되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 팬톤은 매해 시대적 분위기를 담은 ‘올해의 색’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고, 이는 그해의 트렌드를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높다<sup>11)</sup>. 국제적으로 컬러 트렌드를 선정하는 대표적 기관으로 국제 유행색 협회와 팬톤이 있지만, 팬톤의 컬러 트렌드가 국제 유행색 협회 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다. 단순히 전문가에게 색의 기준을 명시하는 것의 차원을 넘어 색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통해 대중과 관계를 맺었다는 점과 현재 국내에서도 팬톤의 컬러트렌드가 비중이 크다<sup>12)</sup>.

## 2. 헤어컬러






헤어컬러는 모발의 색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발의 자연색을 염색, 또는 탈색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염색은 머리카락의 자연적인 색조를 화학 물질인 인공색소로 착색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헤어컬러링, 즉 모발 염색은 모발의 색을 밝게 하는 탈색과는 다르게 다양한 색상을 밝게 또는 어둡게 착색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13)</sup>. 개성 있고 아름다운 헤어스타일 표현을 위해서 다양한 염모제 혼합은 필수적이며 미용인들의 과학적이면서 체계적인 색채의 올바른 지식과 더불어 전문적인 기법이 있어야 고객들에게 잘 표현할 수 있다<sup>14)</sup>.

## III. 연도별 트렌드 컬러 분석






### 1. 팬톤의 트렌드 컬러

200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트렌드 컬러와 헤어 컬러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팬톤 트렌드 컬러를 파악하고<sup>15)</sup>, 연도별로 발표된 컬러를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Table 1>~<Table 3>으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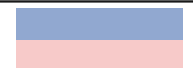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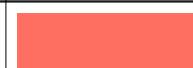

<Table 1> PANTONE Color Trend 2006~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Sand Dollar 13-1106	Chili Pepper 19-1557	Blue Iris 18-3943	Mimosa 14-0848	Turquoise 15-5519

〈Table 2〉 PANTONE Color Trend 2011~2015

2011	2012	2013	2014	2015
				
Honeysuckle 18-2120	Tangerine Tango 17-1463	Emerald 17-5641	Radiant Orchid 18-3224	Marsala 18-1438

〈Table 3〉 PANTONE Color Trend 2016~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Serenity 15-3919 Rose Quartz 13-1520	Greenery 15-0343	Ultra Violet 18-3838	Living Coral 16-1546	Classic Blue 19-4052

### 1.1 2006년~2010년 컬러 트렌드

2006년 팬톤 올해의 컬러는 샌드 달러(Sand Dollar)로 따뜻하고 중립적인 오가늌한 색이며 2007년 홍고추를 뜻하는 칠리페퍼(Chili Pepper)는 매력적, 매운 빨강, 세련됨, 유혹 등의 이미지를 주는 컬러이며 2008년 블루 아이리스(Blue Iris)는 파랑에서 보라색 중간의 컬러로 안정과 진정의 측면과 신비하고 영적인 느낌을 결합한 컬러이다. 2009년 미모사(Mimosa) 컬러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태양의 색상같이 희망과 빛이 나는 것과 같은 밝은 노랑 계열이다. 2010년에는 청록빛 색상의 터퀴이즈(Turquoise)로 경기 불황으로 안정을 찾는 탈출구로서의 의미로 선정하였다.

### 1.2 2011년~2015년 컬러 트렌드

2011년 붉은 핑크 컬러의 허니서클(Honeysuckle)

은 동적 이미지와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듯한 활력적인 느낌을 주며 2012년 탠저린 탱고(Tangerine Tango)는 레드와 섞인 오렌지 컬러로 극적이고 매혹적인 탱고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2013년 컬러는 재생과 복지, 균형을 나타내는 세련되고 럭셔리한 이미지의 에메랄드(Emerald)이고 2014년 래디언트 오키드(Radiant Orchid)는 적자색, 보라색과 분홍색의 중간의 색으로 매혹적인 이미지를 주는 자주빛 컬러이다. 2015년 올해의 컬러는 마르살라(Marsala)로 숙성된 와인을 뜻하는 이름으로 갈색빛의 정교하고 자연스러운 흙빛의 컬러이다.

### 2. 2016년~2020년 컬러 트렌드

2016년의 컬러는 두 가지 컬러로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장미 톤인 로즈쿼츠(Rose Quartz)와 평온한 느낌의 블루 톤인 세레니티(Serenity)이며 2017년에는 자연의 녹색을 연상

시키는 그리너리(Greenery)로 상쾌함과 활력을 주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컬러이다. 2018년에는 잠재력과 창조적인 영감을 줄 수 있는 컬러로 울트라 바이올렛(Ultra Violet)을 올해의 컬러로 선정하였고, 2019년 컬러는 황금빛의 베이스를 가진 산호색으로 활기차면서도 부드러운 컬러의 리빙 코랄(Living Coral)이다. 2020년에는 고도의 기술 발전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현대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평온한 느낌을 주는 클래식 블루(Classic Blue)를 올해의 컬러로 선정하였다.

### 3. 아모스, 웰라, 로레알의 헤어컬러 트렌드

아모스(Amos)는 1930년대 동백기름으로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으며 1950년대에는 미용 재료점 ‘화성사’를 설립하고 미용학교에 미용 용구나 기구를 공급했다. 1990년대에는 국내 최초 크림타입의 염모제를 발매하였고, 2000년 초반 경영위기도 있었으나 2006년을 기점으로 독자적 헤어 트렌드를 체계적으로 발표하며 프로페셔널 뷰티 크리에이터, 아모스프로페셔널(Amos Professional)로 다시 재도약 하게 되었다<sup>6)</sup>. 웰라(Wella)는 13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1880년 독일의 프란츠 스트리허(Franz Ströher)가 설립한 회사로 1934년 해바라기, 코코넛 등에서 추출한 콜레스토랄을 이용한 최초의 크림타입의 염모제를 개발하였다<sup>17)</sup>.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로레알(L'oreal)은 1909년도 프랑스의 화학자인 유게네 술러(Eugène Schueller)에 의해 처음 염모제를 발명

함으로써 ‘안전한 염모제의 회사’라는 뜻에서 로레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sup>18)</sup>.

국내 최초 염모제 발매와 현재 헤어살롱에 대부분의 헤어케어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염모제 회사인 아모스, 1981년 국내에 런칭되어 이후에도 유명 헤어살롱과 프렌차이즈에 꾸준히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웰라와 랑콤, 비오템 등 유명한 브랜드를 포함하고 있는 세계적 화장품 그룹의 로레알은 다양한 컬러 제품과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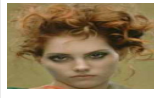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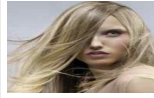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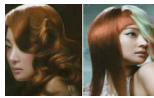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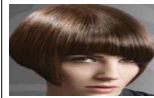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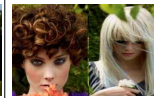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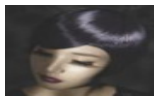




따라서, 국내 헤어컬러 트렌드의 흐름을 연도별로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S/S 트렌드와 F/W 트렌드를 발표하며 헤어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주고 다양한 헤어케어 제품을 발매하고 있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인 아모스, 웰라, 로레알의 헤어 컬렉션에서 연도별로 발표된 헤어컬러를 바탕으로 선행논문으로는 최지원, 윤소영, 김주형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 3.1 2006년~2010년 헤어컬러 트렌드

다음 <Table 4>는 2006년~2010년까지의 아모스, 웰라, 로레알에서 발표된 헤어컬러 이미지를 정리한 결과이다.

2006년 아모스 컬러는 ‘Loving Syndrome’ 을 제안하며 쿠퍼 브라운과 화이트 블론드, 2007년에는 핑크 브라운, 초코 브라운과 바이올렛의 톤온톤 컬러로 질감을 윤기 있고, 건강하게 표현했으며 2008년은 2007년도 보다 1~2레벨 밝아진 핑크 오렌지, 소프트 그레이 컬러로 쿨한 이미지와 다크 브라운, 골드 오렌지 컬러를 표현했다. 2009년은 화이트 & 블루 애쉬 그레이,

〈Table 4〉 Hair Color Trend 2006~2010

	Amos <sup>19)</sup>		Wella <sup>20)</sup>		L'oreal <sup>21)</sup>	
2006						
2007						
2008						
2009						
2010						

골드 오렌지 컬러로 아트적 감성의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컬러 이미지를 2010년에는 샌드베이지 & 카멜브라운, 다크 바이올렛의 깊이감 있는 컬러로 부드럽고 은은한 텍스처를 표현했다. 웰라는 2006년 따뜻하고 얹전한 컬러와 강렬한 쿠퍼브라운, 레드 오렌지의 구리 빛 컬러를 발표했으며 2007년은 하이라이트와 밝은 블론드 컬러로 공작의 화려한 이미지를 표현, 2008년에는 쉐도우 컬러링과 하이라이트 기법으로 컬러를 표현했다. 2009년은 화이트크림, 쿨톤 브라운의 차가운 톤의 컬러, 2010년에는 레드 브라운 컬러, 오렌지 브라운에 밝은 금색 하이라이트를 표현했다. 2006년 로레알은 골드와 브라운을 과감하게 블렌디한 브라운과 2007년은 밝은 브론드와 구리빛 오렌지로 피부와 완벽히 톤온톤 된 색상, 2008년에는 라이트 브라운, 내추럴 브라운, 라이트 오렌지를 발표했다. 2009년

은 밝은 블론드 & 핑크, 블랙 & 블루, 앰버브라운, 화이트 & 밝은 블루 컬러로 파워풀하고 반향적인 이미지를 표현했으며 2010년에는 자연과 닮아있는 잿빛, 레드 빛의 다양한 브라운 컬러를 발표했다.

### 3.2 2011년~2015년 헤어컬러 트렌드

다음 <Table 5>는 2011년~2015년까지의 아모스, 웰라, 로레알에서 발표된 헤어컬러 이미지를 정리한 결과이다.

2011년 아모스 트렌드컬러는 화이트와 포그 베이지, 다크블루 & 레드 바이올렛, 2012년은 모노톤의 블랙과 화이트의 서로 대비되는 컬러와 매트그레이, 쿠퍼브라운을 표현했다. 2013년은 리치핑크 브라운, 베이지 & 퍼플로 40, 50년대의 모던한 구성주의 이미지를 표현했으며



〈Table 5〉 Hair Color Trend 2011~2015

	Amos <sup>22)</sup>			Wella <sup>23)</sup>		L'oreal <sup>24)</sup>	
2011							
2012							
2013							
2014							
2015							

2014년에는 선샤인 오렌지, 메탈릭 딥애쉬 컬러로 디지털 문명에서 벗어난 순수한 모습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2015년에는 마르살라버건디, 펄 라벤더, 오키드 브라운으로 편안하고 로맨틱한 감성이 표출된 컬러를 표현했다. 웰라는 2011년 브라운 & 하이라이트 그라데이션, 블랙 & 화이트로 도발, 야성미, 순수함, 자유분방한 컬러를 표현 했으며 2012년은 밝고 부드러운 톤의 샌드베이지, 바이올렛, 2013년에는 핑크 퓨전, 골드, 2014년에는 어반 네이티브를 모티브로 화려하고 밝은 색상의 라벤더 애쉬, 핑크, 메탈릭 쿠퍼 컬러를 발표했으며 2015년도에는 파스텔톤에 신비함을 더한 핑크베일, 시크릿베일과 마블샌드 컬러를 발표했다. 2011년 로레알은 오크색과 백토색의 하이라이트, 2012년에는 골드에서 쿨 베이지, 바이올렛, 구리빛 갈색의 컬러를 발표했다. 2013년은 모카 브라운, 소

프트 로즈골그, 블론드로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 부드럽고 세련된 컬러를 표현했다. 2014년에는 핑크, 모카, 샌드 베이지, 골든 룩, 쿠퍼 픽스 컬러로 내추럴하고 우아하며 품격있는 이미지의 컬러를 2015년에는 시원하면서도 잿빛 느낌이 나는 쿨 브라운, 애쉬 블론드 컬러를 발표하였다.

### 3.3 2016년~2020년 헤어컬러 트렌드

다음 <Table 6>은 2016년~2020년까지의 아모스, 웰라, 로레알에서 발표된 헤어컬러 이미지를 정리한 결과이다.

2016년 아모스는 피치 핑크 브라운, 키스 브라운 컬러로 도시적이면서 지적인 이미지를, 2017년에는 헤이즐넛 베이지, 그리니쉬로 차분하고 자유로운 이미지의 컬러를 표현했다. 2018



〈Table 6〉 Hair Color Trend 2016~2020

	Amos <sup>25)</sup>		Wella <sup>26)</sup>		L'oreal <sup>27)</sup>	
2016						
2017						
2018						
2019						
2020						

년은 건강하고 따뜻한 색상의 레몬 옐로우와 모카브라운, 2019에는 라벤더 브라운과 스모키 로즈 색상으로 빈티지 감성의 컬러 이미지를 표현했다. 2020은 샌드베이지, 데님 블루 컬러의 신비로운 이미지로 명도만 조절하여 한색 계열의 컬러를 발표했다. 웰라는 2016년 코랄 컬러와 로즈골드로 명암을 정교하게 강조하는 멀티톤 내추럴 스타일을 발표했고, 2017년에는 포레스트 애쉬 카키, 트와일라잇 컬러로 개성을 강조하고 입체감을 강화하여 정밀한 느낌을 표현했다. 2018년은 오키드, 딥체리레드의 딥한 컬러로 고혹적인 여인을 표현했으며, 2019년에는 머쉬룸 블론드, 퓨어어번 컬러로 사랑스럽고 낭만적인 분위기의 이미지와 2020년은 허니 블론드와 클래식블루로 계절에 이미지를 담아 표현했다. 로레알은 2016년에는 토프 브라운, 콘트라스트 버건디로 우아함이 극대화된 이미지

를 표현했고 2017년은 피치와 브릭버건디 컬러로 발랄함과 깊이감이 있는 컬러톤을 발표했다. 2018년에는 파리지엘, 루이보스티의 우아하고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컬러를, 2019년은 리빙 코랄, 울트라 파스텔 컬러로 팬톤 컬러에 메탈릭을 가미한 컬러를 발표했으며 2020년은 블루스톤, 모카 베이지 컬러를 발표했다. 2016년 이후 아모스, 웰라, 로레알의 발표된 헤어컬러에서 빠르게 변하는 컬러 트렌드의 흐름에 맞춰 팬톤 컬러를 참조해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 IV.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헤어컬러 경향

헤어컬러 트렌드 분석을 위해 헤어컬러 트렌드에 민감한 10대~30대 여성의 선호도가 높고

〈Table 7〉 Studies Above

	기간	범위	합계
CECI	2006년 1월 ~ 2020년 12월	100권	300권
COSMOPOLITAN	2006년 1월 ~ 2020년 12월	100권	
VOGUE	2006년 1월 ~ 2020년 12월	100권	

〈Table 8〉 Magazine Hair Color Trend 2006~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CECI <sup>28)</sup>					
COSMO POLITAN <sup>29)</sup>					
VOGUE <sup>30)</sup>					

그 당시 사회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트렌드 세터들이 주로 등장하는 보그(VOGUE), 세씨(CECI),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의 화보를 중심으로 그들의 헤어컬러를 분석하였다. 보그와 코스모폴리탄의 잡지 화보에서 특히 표지 중심으로 등장하는 국내 모델의 헤어컬러에 대해서 <Table 7>과 같이 연구기간을 정하고 잡지사 별과 연도별로 정리하였다.

## 1. 잡지 화보에 나타난 헤어컬러 트렌드

여성잡지 표지는 의상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서 가장 대중적인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관련 문헌 자료를 분석 고찰하고 2019년 폐간된 ‘세씨’의 2019년 이후 자료는 중국판 자료로 인터넷 검색 및 코스모폴리탄, 보그 코리아는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시각적 자료를 바탕으로 잡지사 별과 연도별로 정리하였다.

### 1.1 2006년~2010년 헤어컬러 트렌드

다음 <Table 8>은 2006년~2010년까지의 세씨, 코스모폴리탄, 보그 표지모델의 헤어컬러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2006년에는 중명도의 골드, 오렌지, 레드 브라운 등 화사한 느낌을 주는 미디엄 컬러가 유행하였다. 2007년도에는 웰빙펌, 웰빙컬러, 웰빙커트의 등장으로 건강해 보이는 중, 저명도의 컬러를 선호하게 되면서<sup>31)</sup> 점차 다크와 블랙 컬러가 많이 나타났다. 이후 헤어컬러의 경향이 동양인의 피부색에 어울리면서도 센슈얼한 스타일을 빛나게 해주는 커트와 내추럴한 컬러가 조합된 모던 스타일인 ‘내추럴리즘’<sup>32)</sup>의 영향

〈Table 9〉 Magazine Hair Color Trend 2011~2015

	2011	2012	2013	2014	2015
CECI <sup>34)</sup>					
COSMO POLITAN <sup>35)</sup>					
VOGUE <sup>36)</sup>					

으로 인위적인 색상이 아닌 자연스러운 컬러를 선호하게 되어 이 시기의 컬러시장은 정체기를 보여 전반적으로 침체되었다. 2008년도 헤어컬러의 경향은 이전의 블랙과 블루블랙이 사라지고 2007년보다 1~2레벨 밝아진 중명도의 채도가 높은 컬러풀한 색상들이 유행했다. 2009년 다시 고명도의 따뜻하고 선명한 밝은 색상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중문화계를 장악하고 있는 아이돌 스타의 영향력이 있었으며, 세계적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 아이돌 스타들에 의해 TV 화면이 환해졌으며 다양한 소재의 활용을 통해서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대중들의 욕망으로 화사한 컬러가<sup>33)</sup>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에도 고명도의 라이트 컬러가 강세를 보였고 색상은 선명한 비비드 톤의 컬러가 많이 나타났다.

## 1.2 2011년~2015년 헤어컬러 트렌드

다음 <Table 9>는 2011년~2015년까지의 세씨, 코스모폴리탄, 보그 표지모델의 헤어컬러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2011년 헤어컬러 경향은 고명도의 밝고 부드러운 라이트 컬러가 많이 나타났으며, 중명도의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브라운과 블론드 컬러, 오렌지 브라운은 발랄함과 경쾌함을 더해주는 동시에 세련미를 더해주어 인기를 끌었다. 2012년도 헤어컬러는 1990년대 유행했던 헤어 블리치와 투톤컬러가 나타났으며, 특히 붉은색이 가미된 버건디계열이 나타났다. 2013년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브라운계열의 낮은 레벨의 컬러가 주를 이루었고 전체적인 느낌은 무거우면서 모던하고 반사빛은 붉은기가 많은 레드이다.

2014년은 2013년보다 밝아지는 추세로 블랙 컬러, 라이트 브라운 컬러로 반사빛은 노란빛이 도는 옐로우이다. 2015년도에는 아이돌 스타를 중심으로 헤어 트렌드 이미지의 파급효과가 더욱 커졌고 이들의 헤어컬러 트렌드가 10~30대에게 시각적,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며 새로운 헤어컬러와 표현 방법으로 유행을 이끌게 되었다<sup>37)</sup>. 다양한 명도의 컬러들이 주목을 받았으며 복고의 영향으로 차분하면서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로 반사빛은 은은한 오렌지이다.

〈Table 10〉 Magazine Hair Color Trend 2016~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CECI <sup>38)</sup>					
COSMO POLITAN <sup>39)</sup>					
VOGUE <sup>40)</sup>					

### 1.3 2016년~2020년 헤어컬러 트렌드

다음 <Table 10>은 2016년~2020년까지의 세씨, 코스모폴리탄, 보그 표지모델의 헤어컬러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2016년~2020년에는 한류열풍과 SNS의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컬러 트렌드를 공유하게 되었고, 매년 각 브랜드에서 컬러 트렌드를 발표하면서 헤어 업계에서는 이것을 접목해 각자의 트렌드를<sup>41)</sup> 만들어 나갔다. 헤어컬러는 심리적이고 시각적인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 시대의 트렌드를 선도할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파급효과는 계속해서 커지게 되었다<sup>42)</sup>. 2016년에는 명도가 제일 높은 하이라이트 컬러가 주를 이루고 투톤, 음브레 기법으로 컬러를 더 돋보이게 하며 반사빛은 초록빛이 도는 카키 컬러가 유행하였다. 2017년 헤어컬러 경향은 애쉬와 골드계열의 밝은색이 나타나며, 매트 브라운, 애쉬 브라운, 애쉬 그레이 등 파스텔톤의 붉은 기가 많지 않은 색들이 유행하고 애쉬 계열의 밝지만 가볍지 않고 차분함과 무거운색들이 유행하였다. 2018년에도 다양한 애쉬 컬러

와 핑크, 바이올렛, 골드 톤 등 밀레니얼 세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헤어컬러 역시 과감하고 밝은 색상이 나타났다. 2019년 헤어컬러에서도 명도가 높은 애쉬컬러와 밝은 색상이 계속 유행하였다. 2020년에는 애쉬 컬러가 주 트렌드 컬러이지만 톤 다운된 다크한 블루애쉬 등이 나타났다.

## 2. 모발 명도와 색상에 따른 헤어컬러 트렌드 분석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헤어컬러 트렌드를 명도와 색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10년 이상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미용 기능장 5명의 전문가 집단과 헤어컬러 트렌드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 및 재구성하여 연구하였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은 개인적으로 수집한 잡지를 비롯하여 2006년 1월~2020년 12월까지 각 잡지사의 홈페이지에서 자료들을 수집했다. 잡지사에서 유실된 자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보완하였다. 2010년 이전의 자료는 많이 유실되어 이후의 자료를 중심으로 1차 선택한 분석자료 500

〈Table 11〉 Hair Color Trend - Hair Lightness

	Black	Dark	Medium light	Light	Highlights	합계
2006~2008	16 (25%)	18 (29%)	22 (35%)	7 (11%)	0 (0%)	63 (100%)
2009~2012	9 (9%)	13 (13%)	38 (38%)	28 (28%)	12 (12%)	100 (100%)
2013~2015	3 (3%)	8 (8%)	58 (56%)	17 (16%)	18 (17%)	104 (100%)
2016~2020	9 (4%)	23 (11%)	86 (42%)	52 (25%)	34 (17%)	204 (100%)
계	37 (8%)	62 (13%)	204 (43%)	104 (22%)	64 (14%)	47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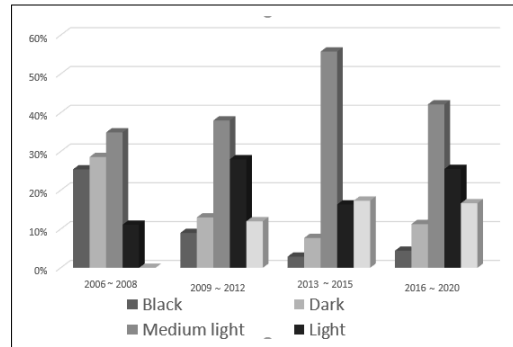
점을 전문가 집단에서 모발 명도와 색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 471점을 2차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헤어컬러의 명도와 색상을 분류하는 과정에 있어서 염모제의 색상과 컬러 명칭이 각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어서 명도(레벨)규정을 국내 염색브랜드 아모스 컬러차트에 의거하여 분류하였다.

모발 명도(레벨)를 1~3레벨은 블랙, 4~6레벨은 다크, 7~9레벨은 미디엄 라이트, 10~12레벨은 라이트, 13~15레벨은 하이라이트로 레벨을 분류하였고, 색상(반사빛)은 레드(Red), 카퍼(Copper), 골드(Gold), 마호가니(Mahogany), 바이올렛(Violet), 매트(Matt), 블루(Blue), 애쉬(Ash)로 분류하였다.

2차 분석에서의 결과를 중심으로 다시 모발 명도와 색상이 유사한 연도별로 2006년~2008년, 2009년~2012년, 2013년~2015년, 2016년~2020년으로 다시 분석하였다.

## 2.1 모발 명도에 따른 헤어 컬러 트렌드 분석

잡지사별 헤어컬러 경향을 모발 명도에 따라 연도별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11>과 <Fig. 1>과 같다.



〈Fig. 1〉 Hair Lightness by Year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헤어컬러 명도는 미디엄 라이트 35%, 다크 29%, 블랙 25%, 라이트 11%, 하이라이트 0% 순으로 미디엄 라이트가 가장 많았고 대체로 중명도와 저명도로 나타났다. 2006년 헤어컬러가 미디엄 라이트가 주로 많았다면 2007년에는 웰빙 열풍으로 인간에게 무해한 천연 재료제품을 선호하게 되어 블랙과 다크 컬러가 많았으며 2008년 이후 내추럴리즘의 영향으로 2007년에 비해 훨씬 가벼워지고 밝아져 다시 중명도의 컬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2009년에서 2012년까지의 명도는 미디엄 라이트 38%, 라이트 28%, 다크 13%, 하이라이트 12%, 블랙 9%, 순으로 미디엄 라이트가 가장 많았고 점차 고명도의 라이트와 하이라이트가



나타났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두운 현실에 대한 반향으로 따뜻하면서 선명하고 밝은 색상이 확장되며 이에 따라 그동안 무겁고 어두웠던 모발 명도가 밝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트렌드세터들의 헤어 컬러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지고 밝아지며 특히 2011년은 고명도의 밝고 부드러운 라이트 컬러가 많이 나타났으며, 2012년도는 1990년대 유행했던 헤어 블리치와 투톤 컬러의 유행으로 하이라이트의 고명도가 나타나고 블랙 컬러는 점차 사라졌다.

2013년에서 2015년까지의 명도는 미디엄 라이트 56%, 하이라이트 17%, 라이트 16%, 다크 8%, 블랙 3%, 순으로 이전보다 라이트 컬러가 낮아지며 미디엄 라이트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중명도가 많아지고 이전보다 다양한 명도 톤의 등장 배경에는 계속된 경기침체의 영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어두운 다크 컬러가 다시 시작되었다가 복고의 영향으로 차분하면서 자연스러운 중명도의 브라운 컬러 톤이 많아지고 아이돌 스타들의 영향으로 다양한 명도의 컬러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13년에는 명도가 어두워졌다가 2014년 이후 점차 밝아지면서 2015년 미디엄 라이트가 주를 이루었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명도는 미디엄 라이트 42%, 라이트 25%, 하이라이트 17%, 다크 11%, 블랙 4%, 순으로 라이트와 하이라이트가 이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시기의 특징은 한류와 SNS, 모바일을 기반으로 소통하는 MZ세대의 영향이 커진점을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컬러 톤이 나타나며 모발 명도는 라이트와 하이라이트의 고명도가 많아졌다. 2016년과

2017에는 명도를 그라데이션 하는 투톤, 옴브레 기법의 유행과 애쉬 계열의 밝지만 가볍지 않은 차분하고 무거운 색들의 유행으로 미디엄 라이트가 주 컬러 톤이었다면, 2018년과 2019년은 숄브레(소프트 옴브레)와 발레아쥬 기법으로 명도가 높은 애쉬컬러와 파스텔, 페일 톤의 유행으로 라이트, 하이라이트가 높게 나타났다. 2020년에는 애쉬컬러가 주 트렌드 컬러이지만 코로나 19(COVID-19)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와 팬톤의 클래식 블루의 영향으로 다크한 블루애쉬 등 톤이 다운된 저명도 컬러 톤이 이전보다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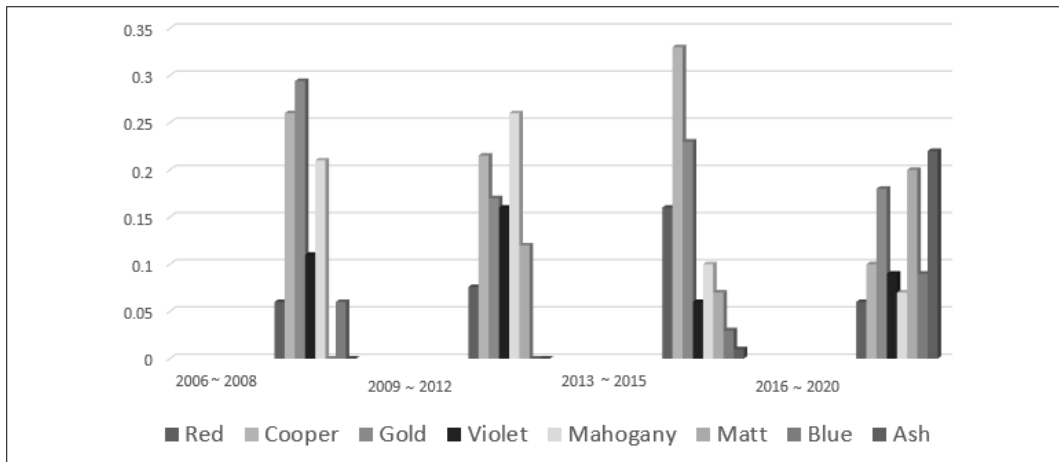
## 2.2 모발 색상에 따른 헤어 컬러 트렌드 분석

헤어컬러 경향을 모발 색상에 따라 연도별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12>와 <Fig. 2>와 같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헤어컬러의 색상은 골드 29%, 카퍼(오렌지계열) 26%, 마호가니(와인빛, 적갈색) 21%, 바이올렛 11%, 레드와 블루 6%, 매트(카키빛)와 애쉬(젯빛) 0% 순으로 나타났다. 웰빙과 내추럴리즘의 영향으로 대체로 난색 계열(따뜻한 색상)의 브라운 컬러, 블랙과 다크브라운 컬러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2006년에는 골드, 카퍼, 마호가니, 레드 브라운 등 화사한 느낌을 주는 미디엄 컬러가 유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다크 컬러가 유행하였으며 블루블랙 컬러의 유행으로 블루 색상도 나타났다. 2008년도는 가공되지 않은 느낌의 차분하고 부드러운 골드계열의 브라운 컬러가 유행하였으며 애쉬와 매트 컬러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2〉 Hair Color Trend - Hair Color

	Red	Copper	Gold	Violet	Mahogany	Matt	Blue	Ash	합계
2006~2008	4 (6%)	16 (26%)	18 (29%)	7 (11%)	13 (21%)	0 (0%)	4 (6%)	0 (0%)	62 (100%)
2009~2012	8 (8%)	22 (22%)	17 (17%)	16 (16%)	27 (26%)	12 (12%)	0 (0%)	0 (0%)	102 (100%)
2013~2015	16 (16%)	32 (33%)	23 (23%)	6 (6%)	10 (10%)	7 (7%)	3 (3%)	1 (1%)	98 (100%)
2016~2020	12 (6%)	21 (10%)	37 (18%)	19 (9%)	15 (7%)	41 (20%)	18 (9%)	46 (22%)	209 (100%)
계	40 (8%)	91 (19%)	95 (20%)	48 (10%)	65 (14%)	60 (13%)	25 (5%)	47 (10%)	471 (100%)



〈Fig. 2〉 Hair Color by Year

2009년에서 2012년까지의 헤어컬러는 마호가니 26%, 카퍼 22%, 골드 17%, 바이올렛 16%, 매트 12%, 레드 8%, 블루와 애쉬 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시기의 헤어컬러 색상은 반사빛이 점차 선명해지며 비비드 톤의 와인과 오렌지 계열의 반사빛 브라운이 주를 이루고 매트브라운 컬러도 나타났다. 2009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어두운 현실에 대한 반향으로 따뜻하면서 선명하고 밝은, 기존의 레드 컬러가 감각적인 코랄, 오렌지로 점차 확

장되면서 더욱 부드럽고 화사한 컬러가 나타났다. 2010년, 2011년 헤어컬러 경향은 밝고 부드러운 라이트 컬러가 많이 나타났으며, 골드, 카퍼 등의 컬러가 섞인 중명도의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브라운과 블론드컬러, 오렌지 브라운이 유행하였고 2012년에는 채도가 높은 난색 계열의 투톤컬러가 나타났다.

2013년에서 2015년까지의 색상은 카퍼 33%, 골드 23%, 레드 16%, 마호가니 10%, 바이올렛 6%, 매트 7%, 블루 3%, 애쉬 1% 순으로 나타났



다.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이전보다 채도가 낮아지며 브라운 계열의 어두운 명도의 컬러가 주를 이루었고 전체적인 느낌은 무거우면서 모던한 레드 컬러이다. 특히 2013년도에는 붉은 색이 가미된 버건디 색상이 유행하여 의상과 립 메이크업뿐 아니라 헤어컬러에서도 버건디 계열이 나타났다. 2014년은 2013년보다 밝아지는 추세로 블랙 컬러, 라이트브라운 컬러로 반사 빛은 옐로우이다. 카키 컬러도 비중을 조금 차지했지만 애쉬 컬러는 나타나지 않았다. 2015년에는 다양한 명도와 컬러들이 주목을 받았고 복고의 영향으로 차분하면서 자연스러운 브라운 계열이 주를 이루었으며 반사 빛은 오렌지였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색상은 애쉬 22%, 매트 20%, 골드 18%, 카피 10%, 바이올렛 9%, 블루 9%, 마호가니 7%, 레드 6% 순으로 애쉬와 매트 컬러의 비중이 커지며 다양한 컬러가 나타났다. 2016년에는 명도가 제일 높은 하이라이트 컬러가 주를 이루고 옴브레 기법과 투톤으로 컬러를 더 돋보이게 하며 반사빛은 카키빛이 도는 매트 컬러가 유행하였다. 2017년 헤어컬러 경향은 애쉬와 골드계열의 밝은색이 나타나며, 애쉬 브라운, 애쉬 그레이, 매트 브라운 등 붉은기가 많지 않은 파스텔톤의 색들이 유행하고 애쉬 계열의 밝지만 가볍지 않은 차분하고 무거운 색들이 유행하였다. 2018년에도 다양한 애쉬컬러와 핑크, 바이올렛, 골드 톤 등 밀레니얼 세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헤어컬러 역시 과감하고 밝은 색상이 나타났다. 2019년에도 명도가 높은 애쉬컬러와 밝은 색상이 계속 유행하였다. 2020년에는 애쉬 컬러가 주 트렌드컬러이지만 어두운 사회적 분위기와 팬톤의 클래식 블루의

영향으로 다크한 블루애쉬 등 톤이 다운된 것이 보였다. 2015년 이전까지는 대체적으로 난색 계열의 브라운 컬러가 가장 많았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트렌드컬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채도가 낮은 파스텔톤과 페일톤, 덜톤 등 다양한 컬러 톤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팬톤 컬러트렌드, 대표적인 염모제 3사(아모스, 웰라, 로레알)의 컬렉션에 발표된 트렌드컬러, 국내외 잡지 화보(보그, 세씨, 코스모폴리탄)에 나타난 헤어컬러 경향을 분석하였고, 세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헤어컬러 경향이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변화요인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헤어컬러의 트렌드를 명도별 색상별로 분석한 결과 헤어컬러의 특징에 따라 2006년~2008년, 2009년~2012년, 2013년~2015년, 2016년~2020년으로 연도별 분류하였다.

2006년~2008년 헤어컬러 경향은 중·저명도 난색 계열의 브라운 컬러, 블랙 컬러가 유행하였고 웰빙펌, 웰빙컬러, 웰빙커트의 등장으로 건강하게 보이는 중명도와 저명도의 컬러를 선호하게 되면서 점차 다크와 블랙 컬러가 많이 나타났다. 이후 헤어컬러의 경향이 인위적인 색상이 아닌 자연스러운 컬러를 선호하게 되어 이 시기의 컬러시장은 정채기를 보여 전반적으로 침체되었다. 웰빙 열풍으로 천연염색제를 선호

하며 다크한 컬러 표현만 가능한 헤나, 오징어 먹물 등 산성과 중성 염모제가 인기를 끌었고, 내추럴리즘의 영향으로 탈색이나 염색보다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모발을 선호하며 모발 클리닉이 유행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2009년~2012년에는 다시 고명도의 따뜻하고 선명한 밝은 색상이 유행하였다. 2009년 후반기에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두운 현실에 대한 반향으로 따뜻하고 선명한 색상이 주목되어 고명도의 라이트 컬러가 대세로 어두웠던 헤어컬러가 한층 더 밝아지고 선명한 컬러로 변화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중문화계를 장악하고 있는 아이돌 스타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후 2013년~2015년에는 다시 어둡고 무거운 컬러에서 점점 밝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이전보다 채도가 낮은 브라운 계열의 저명도 컬러에서 복고 영향으로 중명도의 난색 계열 브라운 컬러가 주를 이루었다. 2015년도에는 헤어 트렌드 이미지의 파급효과가 아이돌 스타를 중심으로 더욱 커지며 다양한 헤어컬러와 표현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2016년~2020년에는 MZ 세대의 컬러트렌드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며 고명도의 다양한 컬러 톤이 나타났다. 한류열풍과 SNS의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컬러트렌드를 공유하게 되었고,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파급효과는 계속해서 커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스타들의 헤어스타일을 따라 하거나 SNS에서의 헤어컬러 정보를 통해서 일반 소비자들의 셀프스타일링이 유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헤어컬러가 나타났다.

둘째, 2006년에서 2020년까지의 트렌드컬러

와 염모제 3사의 헤어컬러 트렌드를 분석하였을 때, 팬톤 컬러와 염모제 3사의 헤어컬러 트렌드는 2015년 이후 유사성을 지니며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이후부터 염모제 3사에서 발표된 헤어컬러 컬렉션에 팬톤 트렌드 컬러가 가미된 것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팬톤 컬러는 마르살라(Marsala)로 아모스의 마르살라 버건디, 웰라와 로레알의 카퍼 컬러와 유사성을 보였다. 2017년 팬톤의 그리너리(Greenery) 컬러는 아모스의 그리니쉬, 웰라의 포레스트 애쉬카키와 유사하였다. 2018년 팬톤의 울트라 바이올렛(Ultra Violet)과 2019년 리빙코랄(Living Coral)은 아모스의 라벤더 브라운, 로레알의 울트라 파스텔과 리빙코랄 컬러와 유사성을 보였다. 2020년 팬톤의 클래식 블루(Classic Blue)는 아모스의 데님 블루, 웰라의 클래식 블루, 로레알의 블루스톤 컬러에 영향을 주며 높은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팬톤의 트렌드컬러가 염모제 3사에서 발표하는 헤어컬러 트렌드에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트렌드컬러와 헤어컬러의 경향을 모발 명도와 컬러로 비교 분석하고 트렌드컬러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팬톤 마르살라(Marsala)컬러는 2015년 이후의 잡지 화보 헤어컬러 경향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며 염모제 3사에서 제시한 트렌드 헤어컬러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팬톤의 2017년 그리너리(Greenery) 컬러는 다양한 매트 컬러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의 울트라 바이올렛(Ultra Violet)과 2019년 리빙코랄(Living Coral)의 영향으로 핑크와

바이올렛이 가미된 헤어컬러가 나타났다. 2020년 클래식 블루(Classic Blue)는 매트한 블루와 애쉬블루로 최근까지 유행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헤어컬러 트렌드를 명도별 색상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명도는 미디엄 라이트 43%, 라이트 22%, 하이라이트 14%, 다크 13%, 블랙 8% 순으로 미디엄 라이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두운 헤어컬러보다 중명도의 밝은 헤어컬러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헤어컬러의 색상은 골드 20%, 카퍼(오렌지계열) 19%, 마호가니(와인빛, 적갈색) 14%, 매트(카키빛) 13%, 애쉬(젯빛)와 바이올렛 10%, 레드 8%, 블루 5%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헤어컬러 경향은 채도가 높지 않은 중채도의 난색(따뜻한 색상) 계열 헤어컬러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잡지 화보의 경우에 배우와 패션모델이 등장하는 자료에서는 트렌드 컬러 보다는 배역이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헤어

컬러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트렌드 컬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유행에 민감한 아이돌 헤어에 트렌드 컬러가 뚜렷하게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트렌드 컬러가 헤어컬러 트렌드에 점차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며 달라지는 헤어컬러의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헤어컬러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미용현장에서 헤어컬러 디자인 기획 시 고객에게 트렌드컬러를 적절히 제안함으로써 헤어컬러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헤어컬러 트렌드 분석이 대부분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자료이며 최근 뉴 레트로의 유행으로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한 2021년 하반기 헤어컬러를 다루지 못한 점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2021년 이후 헤어컬러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연속성 있는 다양한 연구가 지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1) 김윤정.(2017). 19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헤어컬러 트렌드 분석에 관한 연구-잡지 VOGUE 화보 중심으로. *미용예술경영연구*, 11(3), p.2.
- 2) 노영희, 노효경.(2002). 헤어 컬러링이 얼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3(3), p.218.
- 3) 박진현, 정연자.(2015). 헤어컬러차트 색체계에 관한 연구-살롱 프로페셔널용 영구 염모제 헤어컬러 차트를 중심으로.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6(1), p.114.
- 4) 박진아.(2015). 염모제 색상트렌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색상선택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1.
- 5) 최지원.(2013). 한국 여자 연예인의 헤어컬러 트렌드 분석에 관한 연구-2006~2012년대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 6) 윤소영.(2016). 여자연예인 헤어컬러 트렌드 분석-2013~2016년을 중심으로. *미용예술경영연구*, 10(2), p.59.
- 7) 김주형.(2021). 헤어 트렌드컬러 인식이 헤어컬러선택 이유와 소비자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트렌드컬러 만족 수준의 조절효과.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 8)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70436&cid=42641&categoryId=42641>(자료검색일: 2021.11.20.).
- 9) 김지나.(2008). 패션소재의 텍스타일 디자인에 나타난 컬러와 트렌드 제안컬러와 비교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 10) 정원의.(2020). 트렌드컬러 인식도에 따른 헤어컬러 선택의 차이 연구-유행선도력과 소비자혁신성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 1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87214&cid=43667>(자료검색일: 2021.11.20.).
- 12) 오란비.(2017). 팬톤의 컬러 트렌드를 활용한 네일아트 디자인개발. 중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 13) 송준옥.(2008). 대학생들의 모발 염색에 관한 인식도.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 14) 엄슬기, 신다솜, 정연자.(2019). 모발 염모제 삼원색의 혼합에 따른 헤어 컬러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20(4), p.288.
- 15) <https://www.pantone.com/color-of-the-year-2021>(자료검색일: 2021.10.31.).
- 16) <http://www.amosprofessional.com>(자료검색일: 2021.11.20.).
- 17) <http://www.wella.com>(자료검색일: 2021.10.29.).
- 18) <http://www.loreal.co.kr>(자료검색일: 2021.11.20.).
- 19) 최지원.(2013). op. cit., pp.16-34.
- 20) 최지원.(2013). Ibid., pp.16-34.
- 21) 최지원.(2013). Ibid., pp.16-34.
- 22) 윤소영.(2016). op. cit., pp.53-65.
- 23) 윤소영.(2016). Ibid., pp.53-65.
- 24) 윤소영.(2016). Ibid., pp.53-65.
- 25) 김주형.(2021). op. cit., pp.21-24.
- 26) 김주형.(2021). Ibid., pp.21-24.
- 27) 김주형.(2021). Ibid., pp.21-24.
- 28) [https://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img&DA=SBC&q](https://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img&DA=SBC&q)(자료검색일: 2021.11.14.).
- 29) <https://search.zum.com/search.zum?method=image&option=accu&quer>(자료검색일: 2021.11.14.).
- 30) [https://search.zum.com/search.zum?method=image&option=accu&qm=f\\_typing&rd=1&query](https://search.zum.com/search.zum?method=image&option=accu&qm=f_typing&rd=1&query)(자료검색일: 2021.11.14.).
- 31) 최지원.(2013). op. cit., p.44.
- 32) 최지원.(2013). Ibid., p.46.
- 33) 최지원.(2013). Ibid., p.38.
- 34) [https://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img&DA=SBC&q](https://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img&DA=SBC&q)(자료검색일: 2021.11.18.).
- 35) <https://search.zum.com/search.zum?method=image&option=accu&quer>(자료검색일: 2021.11.17.).
- 36) [https://search.zum.com/search.zum?method=image&option=accu&qm=f\\_typing&rd=1&query](https://search.zum.com/search.zum?method=image&option=accu&qm=f_typing&rd=1&query)(자료검색일: 2021.11.19.).

- 37) 박솔이.(2019). 남자 아이돌의 헤어 트렌드 컬러 및 표현기법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
- 38) [https://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img&DA=SBC&q](https://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img&DA=SBC&q)(자료검색일: 2021.11.18.).
- 39) <https://www.cosmopolitan.co.kr>(자료검색일: 2021.11.19.).
- 40) <https://www.vogue.co.kr>(자료검색일: 2021.11.20.).
- 41) 박다나.(2019). 인스타그램에 나타난 헤어스타일 경향.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 42) 박솔이.(2019). op. cit., p.2.